

제十六장 날 곱 가 지 재 앙 (속)

재 앙 을 나 리 심

「내가 드르니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날 곱 천사에게 말하대 가서 하나님의 진
 노를 담은 날 곱 대접을 싸에 쓰드라 첫재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싸에 쓰드매 아
 하고 독한 천대가 증생의 표를 밧고 그 우상에 계 경배하는 사람의 몸에 나더라
 들재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쓰드매 바다가 곳 죽은자의 피가 터 되니 바다가 읍
 대 생물이 다 죽더라 셋재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불샘에 쓰드매 피가 되는지라
 내가 드르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르대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기록하신
 이어 이가려 심판하시니 의로오시도다 저희가 일즉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
 므로 시방 저희게 피를 마시게 하섯으매 저희게 마땅한 것이라 하더니 내가 쓰드
 르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어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오시도다 하더라 넷재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쓰드매 해가 권세를 바다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는 것의 람을 입은지라 이 여러 재앙 차지한 권
 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쓰 회개하야 영화를 들리지 아니하더라 다
 셋재 천사가 그 대접을 증생의 자리에 쓰드니 그 나라이 곳 어두어지며 사람들

이 압해서 자기 혀를 썩히고 압혼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본장에는 날끝까지 재앙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혹은 말하기를 이 날 끝까지 재앙은 사실상의 것이 아니라 상징적(象徴的)의 것이오 또 그 대부분이 이미 성취된바이라 하나 이는 그릇된 생각이니 우리는 이 날끝까지 재앙이 옛날 『애굽』의 열가지 재앙처럼 사실상의 사건이오 또는 장차 잇을 사실임을 믿는다.

그러면 이 재앙이 언제 잇을것이며 얼마동안에 잇을것인가? 첫째천사가 그 대접을 썩에 쏘들때에 독한 현대가 「증생의 표를 밧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자」의 몸에 낫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셋째천사의 처벌이 전파되기를 그친다음에 잇을일로 확실히 알 것이니 대개 셋째천사의 처벌가운데 증생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또 이마에나 손에나 표바든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술을 마시리라는 경고가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십팔장八절의 말씀을 보건대 이 재앙은 하로사이 곳 一년이란 짧은동안에 잇을 일이니 그러므로 다섯재 재앙이 나릴때에 오이러 첫째 재앙의 고통을 밧는자가 잇는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오 부분적으로 잇을듯하니 만일 일반적인일진대 전세계의 주민이 전멸을 당할것일이다. 그러나 이 재앙은 사람이 일족이 당한 아모 재앙보다도 가장 두려운 재앙이 될것이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리실때에 한편으로 은혜를 베프셨으나 이때에는 아모 은혜나 용서를 주시지 아니할것이니 그러므로 이 재앙은 이사야二十八章二十一절에 잇는

말씀과 가리 아조 「비상한일」이 될것이다.

이 재앙은 옛날 『애굽』에 잇은 열가지 재앙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모 손해가 업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것처럼 장차 올 마지막 날끝까지 재앙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증생의 표를 밧지아니한 성도들은 주의 도으심을 입을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늑흔곳에 거할것이오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땅 식을 바들것이오 그 불이 썩히지지 아니하리로다」 (사卅三〇十六)

첫재재앙 — 악하고 독한 창질이니 무섭게 압흔것이다.

둘재재앙 — 바다가 피와 가리 될것이니 그때에 바다의 모든 고기가 죽을것이다.

셋재재앙 — 모든 물생과 강까지도 모다 피가 될것이니 이는 저희가 일즉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제 그 피를 마시게 할이다. 대개 저들이 독한 창질로 인하여 전신이 압흔고 갈증이 심하므로 물을 차올리어나 모든 생은 다 피가 될것이다. 넷재재앙 — 무서운 더위니 바례 추수할 모든 곡식이 타바릴것이다.

다섯재재앙 — 큰 흑암을 증생의 자리에 부을것이니 증생은 곳 법왕권을 가리침이오 그 자리는 『로마』를 가리침일것인바 법왕의 지배를 밧는 여러나라가 곳 흑암으로 덮힐것이다.

도 이 기 의 종국

「여섯재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부락데』에 쏘드매 강물이 곳 말라서 동방에

서 온능 여러 님군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게 하더라 내가 보매 사귀 셋이 개고리와 가락야 등의 입과 증성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니 저는 마귀의 신령이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여러 님군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큰날에 모화 싸우게 하더라 불지어다 내가 도적가리 오리니 누구든지 날뻐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도다 저희가 여러 왕을 한곳에 모으니 그곳은 『하부리』음으로 『아마겔론』이더라

여섯재왕——여섯재 재앙가운데 제일 큰 사건은 예수재림전에 잇을 마지막 큰 전쟁 즉 『아마겔론』전쟁이니 이 『아마겔론』이란 이름은 전쟁이 잇을 지명을 쓰라 이름한 것이다.

이 전쟁은 토이기의 국권이 쇠퇴하여 짐을 쓰라서 동방 여러 나라의 진출(進出)로 말미암아 이리날것이니 토이기의 권세가 쇠퇴하여 지는것을 여기에는 『유부라데』강물이 마르는것으로 표상하였다. 대개 『유부라데』강은 여러 세기동안에 토이기의 관도가운데 속하여 잇었으며 오늘날도 오이러 그 강의 상류지방은 토이기 나라의 관도에 속하여 잇는리이다.

그런데 사귀 셋이 개고리와 가락야 등의 입과 증성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으로 나와 온 천하 여러 님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날인 세상 마지막날에 모화 싸우게 한 다고 하였다. 통은 곳 이교를 대표하였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연 배척하는자들을 의미함이오 증성은 이미 十三장에서 연구한바와 가리 천주교를 대표함이니 하나님과 그

리스도를 아는자들은 의미함이며 거짓선지자는 소위 하나님의 진리를 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릇된 신탁과 각교회를 가리켰다. 그러므로 이 세 계급은 거의 세상 인류를 다 포함하니 이 세 큰세력이 온 세상의 집권자들을 충동하여 최후의 세계대전쟁을 이리킬것이다.

마지막 재앙

「닐함재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가운데 쓰드매 큰 소리가 성전으로 조차 보좌로부러 나서 가르대 다 되었다 하니 벌개와 음성파 퇴성이 잇고 또 큰 지진이 잇어 어찌 큰지 사람이 서에 잇어 음으로 이가 리 큰 지진이 업는지라 큰 성이 세갈래로 갈라지고 또 이방 여러 성도 다 무너지니 하나님의 큰성 『바벨론』을 기억하사 자기의 진노하시는 독주를 잔에 부어



경전대 『돈겔리아』을 잇어 마지막 상제

주시매 ^三여려 성도 다 업서지고 산악도 간대업더라 ^三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나
리니 ^三우박덩어리마다 중수가 백근쯤되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
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닐곱재재앙—닐곱재천사가 그 대접을 공회 가운데 쏘들때에 큰 소리가 성전으로 조
차 보좌로부터 나서「다 되었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파 뇌성이 잇고 큰
지진이 나서 큰성『파벨론』을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할것이니 하나님의 진리를 배
반하던 큰 조적이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것이다。 또한 중수가 백근
씩이나 되는 우박이 나릴것이니『음』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내가 어찌 눈싸힌 고
간에 이르렀으며 우박잇는 폭간을 보았느냐 이것은 내가 저축하여 환난의 때와 싸호
는 ^三천성의 ^三재앙 기구일노라」(유제八〇章二、三)하였다。

이상과 가리 재앙이 재앙우에 더하여 온 세상은 파괴되고 멸망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자들은 구원하실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이 큰 재앙들을 면하기를
경고하시는것이다。 옛날『이스라엘』백성이『애굽』에 열가지 재앙이 막 나리자『애굽』에
서 구원을 바는것처럼 우리도 이 님곱가지 재앙이 막 솟나면서 구원함을 바를것이니
우리는 시편九十一편에 잇는 말씀을 의미깊히 생각할 필요가 잇는것이다。

「지극히 능호신자의 손밀한 곳에 거처하는자가 전능하신자의 그늘아래 거하리로다 내
가 여호와를 말하여 나를것은 주께서 나의 피할곳과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의지하
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대개 나를 덮는것은 그들의 그늘에 버서나계 하시고 독한 병에

서 전지시리로라 자기 것으로 나를 덮호시매 내가 그 날개아래 피하리니 그 진실
하심이 방패와 갑옷이 되도다 나는 밤에 슬라는것과 나제 흐르는 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운가운데 행하는 질병과 백주에 해하는 패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리로다 비록 천인이 내 겨레 업드리지며 만인이 내 우편에 업드리지되 그 재앙이
내게 가싸이 오지못하리로다」